



분고모리 기관차고 공원에 인접해 있으며 기관차고와 같은 시기에 건설된 쌀 저장 창고를 리모델링한 공간입니다. 매장 내 객석에서는 대자연 배경으로 오가는 JR 규슈의 D&S 열차를 가까이서 보며 구스 마을산 특A급 쌀 등 지역산 메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복지와 관광'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사회복지재단) 교운복지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제 빵, 오리지널 쿠키와 같은 선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google map



- 철도 유산
- 분고 모리 기관차 차고 박물관
- 나무 그루터기의 전설
- 행운의 폭포
- 분의 안데르센
- 숲의 크레옹

Let's relax
여기서 쉬어가세요



증기 기관차 29612호

분고모리 기관차고 공원의 또 다른 명물은 바로 기관차고 앞에 고스란히 보존된 실물 증기 기관차입니다. 1919년~1974년, 55년 동안 활약했고, 나사사키에 원자탄이 투하했을 때는 많은 피복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폐차된 후에는 후쿠오카현에 전시되어 있었지만 노후화로 인해 2013년 해체 처분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체를 안타까워하는 의견이 많았고, 이를 반영해 보수를 거쳐 분고모리 기관차 공원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차고를 배경으로 오래된 증기 기관차가 우뚝 서 있는 광경에서는 감탄할 정도로 사진이 정말 잘 나옵니다.

구 분고모리 기관차고·전차대

규슈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부채형 기관차고(부채형 증기 기관차고)입니다. 후쿠오카현 구루메시와 오이타시를 잇는 규다이본선이 개통되었던 1934년, 당시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철도에서 구 분고모리 기관차고는 증기 기관차의 물과 석탄을 보급하는 중요한 차량 기지였습니다. 최전성기 때는 25량의 증기 기관차가 있었으며, 약 200명에 달하는 인원이 기관차고에서 일했습니다. 또 당시 분고모리역에는 등산객과 온천객 등 관광객이 마을을 찾으면서 하루 5,000명이 역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관차 동력이 점차 디젤로 옮겨갔고 1970년에 증기 기관차 및 전차대의 수요가 사라지면서 분고모리 기관차고의 역할도 막을 내렸습니다.



그 후 폐쇄된 지역 반세기가 지나면서 해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보존 및 국가 유형 문화재 등록 서명 활동으로 20,000명 이상의 서명이 모였고 덕분에 지금도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고모리 기관차고와 전차대는 2012년에 국가 유형 문화재, 2017년에 일본 유산 구성 문화재에 등재되었고, 작은 마을의 커다란 문화유산으로서 마을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부지가 정비되어 '분고모리 기관차고 박물관'도 설립되는 등 '분고모리 기관차고 공원'으로서 시대의 흐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분고모리 기관차고 박물관



'역사와 놀고, 배우고, 즐기기'를 콘셉트로 마을 주민, 외부 관광객이 철도의 역사와 접하면서 철도를 즐길 수 있는 박물관. 외국에서도 유명한 JR 규슈의 D&S 열차(Design & Story), '유후인노모리', '세네프스타 in 규슈' 등 관광 열차를 디자인한 미토오카 에이지 씨가 차량 내부와 외부 디자인을 했으며, 미토오카 씨의 작품, 구 분고모리 기관차고와 철도의 역사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관련 그래픽과 나무 풀장이 있습니다. 전철 관련 종이접기나 그림 그리기, 플라스틱판 공예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 영업시간: 10:00 ~ 16:00
정기휴일: 매주 월요일
(공휴일과 겹칠 경우 화요일)
입장료: 100엔(중학생 이상)



미니 트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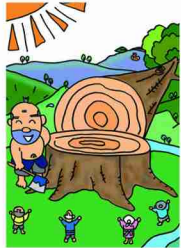
분고모리 기관차고 공원의 문화재와 기리카부산 등 대자연을 조망하며 총 길이 316m에 달하는 미니 트레인을 즐겨 보십시오.
(성인도 승차 가능합니다)
매주 일요일 12:00 ~ 16:00(우천 시 중지. 12 ~ 2월은 운휴)
※승차 시 운행유지비 지불에 협력해 주십시오.



옛날 옛적의 기리카부산



쓰러진 거목



옛날의 기리카부산



현재의 기리카부산



하이드의 그네



KIRIKABUHOUSE(전망대)



'기리카부 전설' 구스마치의 이야기

옛날 옛적, 하늘까지 뻗어 있는 커다란 녹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의 그늘이 마을 전체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는 작물이 전혀 자라지 않았습니다. 곤란해했던 마을 사람들은 나무꾼 거인을 고용해 거목을 잘랐고 풍족한 태양의 은혜를 받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산골 마을은 맛있는 쌀과 채소의 산지가 되었습니다. 남은 그루터기가 눈앞에 자리한 '기리카부산', 그리고 그 산골 마을은 '구스마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규슈 각 지명의 발음도 이 쓰러진 거목에서 기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곳까지는 오지 않으려니 '구루메', 쓰러진 나무의 가장 긴 끝이 '나가사키', 나뭇잎이 폭신하게 떨어진 자국이 '하카타', 새들의 동지가 떨어진 곳이 '도스'가 되는 등 지명이 지어졌다고 전해집니다. 헤피엔딩, 헤피엔딩. 산꼭대기까지는 자동차로도 갈 수 있으며 'KIRIKABU HOUSE', '하이드의 그네', '360도 파노라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스마치 찾아오는 길

후쿠오카 공항에서 자동차로 70분
오이타 공항에서 자동차로 60분
유후인역에서 자동차로 30분
하카타역에서 전철로 90분
오이타역에서 전철로 80분
유후인역에서 전철로 30분



오이타현 구스마치 마을사무소
우) 879-4492
오이타현 구스마치 오아지 호아시 268-5
☎ 0973-72-7153
mail : syokou@town.kusu.oita.jp

오이타현 구스마치관광협회
우) 879-4413
오이타현 구스마치 오아지 호아시 296-13
☎ 0973-72-1313
mail : info@kusumachi.jp



지은노타키 폭포

체감 온도 영하 5도. 2단 폭포로 되어 있으며, '휴게소 지은노타키' 주차장에서 도보 1분 거리. 폭포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유후인노모리호 열차가 폭포 앞을 천천히 통과하니 놓치지 마십시오.



구루시마 다케히코 기념관

세토 내해에서 활동했던 해적의 후손이자 구스마치 출신의 구연 동화가입니다. 전세계를 둘러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어 일본의 안데르센이라 불렀던 구루시마 다케히코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http://kurushimatakehiko.com/

